

태국 북부서 조류독감 걸린 비둘기 집단폐사

[연합뉴스 2004.11.19 11:01:40]

=폐사 비둘기 발견된 학교 두곳 잠정폐쇄(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과원 = 태국 북부 수코타이주(州)에서 비둘기가 조류독감에 걸려 집단 폐사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일간 방콕 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수코타이주 통 살리암군(郡)의 초등학교 한군데와 유치원 한곳에서 비둘기 수백마리가 조류독감 때문에 집단 폐사한 것으로 검사 결과 확인돼 학생 500명이 재학중인 이 학교들이 잠정 폐쇄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수코타이 주정부 의학센터가 지난 17일 비둘기 집단 폐사 원인이 조류독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현지 주민들이 조류독감 감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전했다.

수코타이주에서도 다른 지역처럼 금년 초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은 있지만 통 살리암군에서 조류독감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말했다.

타왓 순타라잔 태국 보건부 질병통제본부장은 이달 5일 통 살리암군에서 집단폐사한 비둘기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서둘러 방역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타왓 본부장은 그러나 폐사한 비둘기들이 발견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일시 폐쇄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수코타이주 보건국은 이들 학교 재학생에게서 조류독감 징후가 나타나는 지를 2주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은 한명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태국 정부 '조류독감 퇴치센터'의 차관 투린웃티퐁 소장은 현지의 조류독감 바이러스 확산 범위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